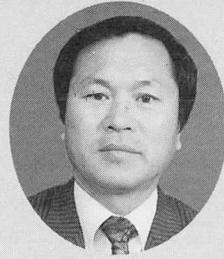


# 세계속의 양돈인의 역할



전재명

(본회 전남도협의회장)

세상인류가 희망이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계절로서는 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본다. 봄이라는 것이 다른 계절에 비해 더 희망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일년 중에 남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농민 누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소리는 농촌 어디에서나 이구동성이 다. 더욱이 농민이 실망하고, 긴장과 초조한 것은 농정의 책임자인 장관이 불과 일년이 조금 넘는 사이에 3명이나 바뀐다는 것이 더욱 불안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양돈업을 천직으로 희망과 보람, 그리고 긍지와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세계속의 한국 양돈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월간 양돈에 올려 본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93년은 온 세계가 UR협상문제로 들끓은 한해였다. 적자생존의 엄연한 현실속에서 국제화, 개방화라는 단어는 이제 생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엄연히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UR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축산물, 특히 쇠고기의 경우 많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의 경우도 1997년 이전까지는 쿼타량에 의해 수입량이 조정되지만 1997년 7월 이후는 33.4%의 관세로 전면 자유화되게 되어 있다.

양돈산업은 다른 축종에 비해 생산비 절감 등을 한다면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값싼 수입쇠고기가 자유로이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의

쇠고기 선호로 보아 돼지고기시장이 잠식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2000년대의 세계는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돈인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세계속의 우리 양돈을 생각하고 우수한 종돈의 확보, 육돈의 생산 및 사양관리의 효율적 운용, 따라서 전업농의 자가인력,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가업으로 진력하며 위생적 처리로 품질 유지 등을 실시하여 경쟁국과 비교하여 보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분석을 하여야 하며 내적으로 생산자, 학계간의 상호간 정보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자기상품이 제일이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생산한 돼지에 대해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면 우선 국제경쟁에서 지게 되고 이러한 경영의 장래는 불보듯 뻔한 노릇이다. 최근 들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기농장 돼지고기에 대한 PR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일로 이러한 제품의 자기이름 갖기, 즉 브랜드화야말로 2000년대를 맞이할 대표적 전략이라 아니할 수 없다. 브랜드화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소비자에게 가깝게 갈 수 있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제품생산은 결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통·소비

장황한 언변보다 묵묵하고 침착히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나아가서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밝은 희망이 꼭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믿으며 희망과 그 보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단계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현대는 고기가 단순한 단백질 에너지원의 차원을 넘어 위생적이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 기른 돼지라 하더라도 도축한 채 발골판매 등 유통과정이 불결하다면 상품의 질이 떨어져 가치를 잃게 된다. 우리나라의 도축장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시설의 낙후와 경영비 상승 등을 이유로 선진국에 비해 비위생적으로 도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위생적 처리는 위생적으로 잘 처리된 외국산 돼지고기가 수입되어 위생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시중에 본격적으로 유통되게 될 때 소비자가 수입돼지고기를 선호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생산자는 생산된 돼지를 도축·유통단계에까지 감시하여 항상 위생적인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통구조개선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양돈산업에 해당되는 경영합리화와 독자적인 노하우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흔히 수지가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해타산적 경제원칙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이라는 것은 생물을 다루는 것으로 그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요즘 축산농가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축산폐수처리비용이 생산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을 보면 정부에서 무상보조 또는 장기저리자

금을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대적 상황판단을 못하는지 단속만으로 일관하여 축산인들을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취급한다. 이제라도 늦은 감이 있으나 과감한 지원을 하여 공해없는 축산농가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계열화사업의 적극적 참여로 안정된 경영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상호 협조하는 생활태도가 몸에 익숙한 듯 하나 좀더 깊이 보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없지 않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속에서 개인, 조합, 국가로 이어지는 협조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중소양돈주체의 경우 양돈단지, 유통업체, 사료업체를 연계하여 단지내의 품종개량을 이루고 이에 적합한 사료의 개발과 저렴한 공급 그리고 판매를 책임질 수 있는 유통업체의 연계는 꼭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 우리 양돈인이 국제화, 개방화에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의식변화의 일부를 언급하여 보았다. 양돈은 말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양돈인이 나가야 할 역할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면서 장황한 언변보다 묵묵하고 침착히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나아가서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밝은 희망이 꼭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믿으며 희망과 그 보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